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 *

강 수 진¹⁾

화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최 영 희²⁾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성인애착이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경기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1곳과 충청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1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학생 324명, 여학생 305명으로 총 629명의 대학생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성인애착은 Fraley 등(2000)이 성인애착유형검사로 개발한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을 김성현(2004)이 변안한 척도로, 정서조절양식은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변안, 수정한 척도로, 사회불안은 La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AS-A)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변안한 척도로, 대인관계능력은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변안한 척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처리 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이 낮았고,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애착회피의 설명력이 애착불안보다 높았다. 둘째, 성인애착의 불안, 회피 차원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을 완전하게 매개하였다. 셋째 성인애착의 불안, 회피 차원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정서조절양식과 마찬가지로 사회불안은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을 완전하게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사이의 인지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고착되어 변화가 어려운 애착으로 인해 대인관계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위해 상담장면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정서조절양식, 사회불안, 매개효과, 중다회귀분석

* 본 논문은 2010년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화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

2) 교신저자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E-mail : heechoi@suwon.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워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김혜남, 2006). 따라서 인간은 대인관계에 관심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며, 그 관계 속에서 편안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대인관계가 인간의 삶에서 소중한 만큼 대인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이정희, 2005). Horowitz(1996)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심리적 갈등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은 사실상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촉발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인관계 문제는 우울, 불안, 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den & Phillips, 1990).

이러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즉 애착관계의 탐색은 필수이다. 오늘날 다양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파들은 그들의 이론과 기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성격과 정신병리의 발달에 어린 시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데 동의한다(Brisch, 2003). 즉 내담자가 현재 상담에서 보이는 문제의 대부분은 내담

자의 발달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초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필수조건이다. 이는 생후 1년간 영아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의 결과가 이후 발달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애착이론이 창설된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애착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Bowlby의 애착이론과 정신분석의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애착이 대인관계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애착과 대인관계의 상관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함께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들로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의식유형, 자존감과 같은 자기관련 개념들을 함께 연구하여왔다(김영미, 2009; 문혜정, 2004; 신노라, 안창일, 2004; 안희애, 2006; 이숙희, 김숙령, 1996; 홍계옥, 최경순, 1996; 황경옥, 2001). 그렇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애착과 대인관계능력 및 관련변인들의 단순 상관을 보거나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찾아내는데 그치고 있어, 대인관계능력과 관련해서 애착이 개인의 내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Mikulincer, Shaver와 Perge(2003)는 애착대상과 안정적 애착을 맺은 아동은 위험 상황에서 애착대상과의 근접성 추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기반 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는 반면 애착대상의 가용성이 불규칙적이어서 비

일관적 경험이 반복될 경우 정서조절에서 과잉활성화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과잉활성화 전략은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탐지해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사소한 위협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표현하도록 한다. Mikulincer 등 (2003)의 이러한 연구는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조절전략과 불안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Searle과 Meara(1999)가 애착유형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안정형은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표현적이기 때문에 감정표출을 쉽게 하고 강력한 감정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편안하게 표현하였다. 반면에 집착형은 감정이 격하고 불안정하여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하였고, 거부형은 감정을 적게 느끼거나 감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려움형은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귀선(2002)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양식의 차이를 본 연구 결과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정서조절 양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안정형 애착집단이 불안정 애착집단보다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였다.

또한 정민현(2003)이 사회불안의 하위영역인 대인불안과 애착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 결과 대인불안과 안정애착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대인불안과 불안정 애착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Warren, Huston, Egeland와 Sroufe (1997)의 연구에서도 불안-양가 애착이 불안장애의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이 애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 연구가 있

어왔는데(권윤정, 2008; 김성애, 2008; 박혜주, 2003; 안경미, 2008; 황은수, 2006), 대부분의 연구결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효과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선택하며, 불안을 덜 경험하였다.

애착과 관련된 이러한 정서조절양식과 불안은 대인관계 능력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박은희(2006)는 사회공포증 집단의 사회행동에 대한 연구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 확신이 떨어지고, 덜 비판적, 덜 통제적, 비주장적으로 지각되며, 소심한 태도를 보여 대인관계 시 부정적 사회결과를 가져 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련한 또래변인을 살펴본 현온강과 이현정(1999)은 부정적 정서조절행동이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등의 행동문제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긍정적 정서조절행동과 교우관계와 가족관계, 현실적응성 등의 전체 사회적 능력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애착, 정서조절양식, 사회불안, 대인관계능력이 서로 많은 부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미 형성된 애착의 질이나 대인관계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이정희, 2005). 그러나 애착과 대인관계능력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인지적으로 수정 가능한 것이라면 그 매개변인에 개입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고착된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대인관계능력에 손상이 있는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양식이나 사회불안은 인지적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적응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선주(2008)는 불안이 높은 아동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개입이 있었던 집단의 아동들은 정서지능 중 특히 ‘정서 조절’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불안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자기주장훈련으로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김수기, 2000; 오자영, 2004). 이와 같이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은 인지적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 적응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다양한 매개변인들 가운데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대학생 시기가 되면 두드러진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실패는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불만족과 의욕상실 뿐 아니라 인격발달에도 큰 방해를 받게 된다(권석만,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두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연구가설 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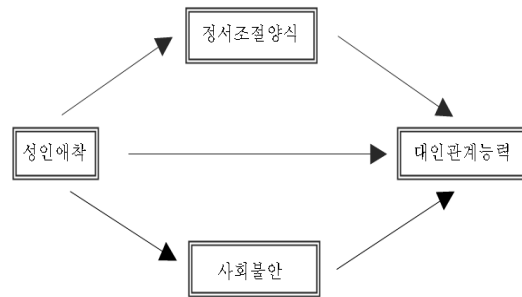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가설모형

연구문제 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애착이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인애착이 사회불안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1곳과 충청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 1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하거나 무응답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 31부를 제외한 6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29)

변인	구분	빈도 (%)	전체 (%)
성별	남자	305 (48.5)	629 (100)
	여자	324 (51.5)	
전공	인문	160 (25.4)	629 (100)
	이공	336 (53.4)	
	사회과학	39 (6.2)	
	예체능	87 (13.8)	
	기타	7 (1.1)	
학년	1 학 년	158 (25.1)	629 (100)
	2 학 년	208 (33.1)	
	3 학 년	154 (24.5)	
	4 학 년	109 (17.3)	
형제순위	첫째	283 (45.5)	629 (100)
	중간	74 (11.8)	
	막내	218 (34.7)	
	독자	54 (8.6)	
가정경제 수준	상	45 (7.2)	629 (100)
	중	487 (77.4)	
	하	97 (15.4)	

2. 측정도구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선호하는 특정인에게 근접성을 유지하는 경향성(West, Sheldon, & Reiffer, 1987)이다. 이러한 성인애착은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성인애착유형 검사로 개발한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김성현(2004)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ECR-R의 확증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불안과 회피의 두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불안과 회피요인이 각각 18문항씩 총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며, 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차원이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불안과 회피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애착의 불안차원은 .87, 애착의 회피차원은 .83, 전체는 .88이었다.

정서조절양식

정서조절양식의 측정도구는 Garnefski, Kraaij와 Spinhoven(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긍정적 조절양식과 부정적 조절양식을 조사하고 있다. 긍정적 조절양식은 경험하는 사건의 심각성을 낮추고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그 상대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수용하는 것,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실제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 즐겁고 기쁜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 사건에 개인 성장 등의 긍정적인 사고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부정적 조절양식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 부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고와 느낌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경험한 사건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는 사고이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조

절 정도가 높은 것이다. 긍정적 조절양식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7, 부정적 조절양식의 신뢰도는 .73, 그리고 전체의 신뢰도는 .78이었다.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친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주시되는 상황을 접하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정서로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 근거하여 사회불안을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인 대인불안과 특정 수행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인 수행불안으로 나누었다.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a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AS-A)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와 같이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에 대한 문항 18개이며 두려움-부정적 평가, 두려움-새로운 상황, 그리고 두려움-일반적 상황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소척도별 내적합치도는 .69에서 .88로 보고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간 척도를 배제하여 응답자의 긍정 혹은 부정의 태도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수행 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청소년 사회불안척도(SPAL-C)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혜신과 오경자(2002)는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구조를 파

악한 결과 수행불안 요인을 포함한 5개 요인을 발견하였으며 수행불안 요인 이외의 4 요인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대인관계 불안요인이었다. 수행불안 척도는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못한다”와 같이 수행상황을 질문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 혹은 부정의 태도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대인불안이 .90 수행불안이 .90 전체는 .93이었다.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의 측정도구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과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이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능력을 5가지 영역-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으로 조사하고 있다. 처음 관계 맺기는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뜻하고, 자기노출은 친밀감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능력이며, 정서적인 지지나 조언은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알아차려 타인을 지지하고 조언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정

회, 2005). 김창대와 김수임(1999)은 본 척도가 DSQ(Dating Skill Questionnaire)와 상관되어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제공해준다고 보고하였다. 대인관계능력 하위영역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64에서 .76이었으며 전체는 .89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SPSS program으로 검증하는 방식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이때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분석단계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의 회귀식에서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없을 경우를 말하며, 부분매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역시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유지선, 2004).

III. 결과 및 해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조절양식과 대인관계능력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능력을 24% 설명하였다. 애착회피($\beta=-.45$)가 애착불안($\beta=-.09$)보다 대인관계능력을 예측하는 정도가 높았다. 즉,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을 경계하는 것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성인애착					
1. 애착회피	1.00				
2. 애착불안	.32**	1.00			
3. 정서조절	-.25**	-.36**	1.00		
4. 사회불안	.37**	.57**	-.41**	1.00	
5. 대인관계	-.48**	-.24**	.51**	-.43**	1.00
평균	2.24	2.21	2.68	2.30	2.80
표준편차	.38	.44	.25	.50	.31

** $p < .01$

표 3.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대인관계	애착회피	-.45**	.24	96.97**
능력	애착불안	-.09*		

* $p < .05$, ** $p < .01$

표 4.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1	정서조절	애착회피	-.25**	.06	42.09**
2	대인관계	애착회피	-.48**	.23	186.66**
3	대인관계	애착회피 정서조절	-.38** .41**	.39	198.67**

** $p < .01$

2.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Baron과 Kenny(1986)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성인애착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매개변인으로 정서조절양식, 종속변인으로 대인관계능력을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양식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5$, $p < .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beta = -.48$, $p < .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애착회피와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양식의 영향력($\beta = .41$, $p < .001$)이 유의하면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48$ 에서 $\beta = -.38$)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하므로 정서조절양식은 애착회피가 대

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조절양식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1	정서조절	애착불안	-.36**	.13	92.68**
2	대인관계	애착불안	-.24**	.06	36.62**
3	대인관계	애착불안	-.06	.26	109.56**
		정서조절	.48**		

** $p < .01$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 애착불안이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력($\beta = -.36, p < .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4, p < .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애착불안과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정서조절양식의 영향력($\beta = .48, p < .001$)이 유의하면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24$ 에서 $\beta = -.06$ 으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정서조절양식은 성인애착의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을 완전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애착회피는 그러한 성향 자체로 대인관계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성향은 긍정적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능력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불안해하는 애착불안은 긍정적 정서조절이 부족한 것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있었다. 즉,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먼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불안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1	사회불안	애착회피	.37**	.14	101.48**
2	대인관계	애착회피	-.48**	.23	186.66**
3	대인관계	애착회피	-.37**	.30	133.94**
		사회불안	-.29**		

** $p < .0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 .37, p < .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beta = -.48, p < .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애착회피와 사회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

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의 영향력($\beta = -.29, p < .001$)이 유의하면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48$ 에서 $\beta = -.37$ 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하므로 사회불안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불안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1	사회불안	애착불안	.57**	.33	301.53**
2	대인관계	애착불안	-.24**	.06	36.62**
3	대인관계	애착불안	.01	.18	68.91**
		사회불안	-.43**		

** $p < .01$

표 7과 같이 1단계에서 애착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 .57, p < .001$)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애착불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 = -.24, p < .001$)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애착불안과 사회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인 사회불안의 영향력($\beta = -.43, p < .001$)이 유의하면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beta = -.48$ 에서 $\beta = -.37$ 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사회불안은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을 완전하게 매개함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불안이 불안정 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간을 매개하여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졌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사이를 사회불안이 완전 매개하였는데, 이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부분이 사회불안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애착과 대인관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많지만, 애착과 대인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미 형성된 애착의 질이나 대인관계 패턴은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은 인지적 개입으로 변화가 가능하므로(오자영, 2004; 한선주, 2008) 그들의 매개효과가 검증되면 정서조절과 사회불안을 극복하여 애착으로 인해 고착된 대인관계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의 개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기제를 이

해하고 상담 장면에서 개입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모두 대인관계능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상대에게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애착회피 정도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타인과의 갈등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안정될수록 자신감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이었다는 연구(박은경, 1992),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대인관계유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신지옥, 2006), 불안정 애착이 안정 애착보다 유의미하게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박경희, 2005; 이유헌, 2006) 등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는 결과들과 같았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애착회피의 영향력이 애착불안보다 높았다. 즉 애착불안 집단보다 애착회피 집단이 대인관계능력에 더 많은 손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신지옥(2006)의 연구결과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유능성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인관계 집단에 소속되어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안해하는 것 보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를 회피하고 겉도는 것

이 대인관계에 더 부정적(김동직, 한성열, 1997)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적 영역을 살펴본 Searle과 Meara(1999)는 회피애착형은 감정의 강도가 낮고 자기감정에 주의를 적게 기울이며 표현하는 정도도 다른 애착유형에 비해 더 낮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이 대인관계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인애착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고착된 대인관계문제를 중재하고자 할 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조절양식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애착불안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매개하였다. 즉, 애착회피 성향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긍정적 정서조절양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나 애착불안 성향은 그것 자체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그러한 불안이 긍정적 정서조절양식을 방해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저하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신지옥(2006)이 애착, 정서,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갖는데 비해 애착불안은 간접효과만 보였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셋째, 성인애착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사회불안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

쳤다.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졌으며, 불안정 애착에 영향을 받은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개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이런 사회불안이 개인의 대인관계능력에 큰 손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대인관계능력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회불안영역을 탐색하고 자신의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정서조절능력과 마찬가지로 사회불안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매개하였다. 즉, 애착불안은 사회불안을 통해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애착 특성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kulincer 등(2003)에 따르면, 불안유형의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의 경우, 애착대상의 가용성이 불규칙적이어서 비일관적 경험이 반복되는데, 이는 이차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과잉활성화 전략을 발달시키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잉활성화 전략은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탐지해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사소한 위협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표현하여 애착 대상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은 애착 대상의 가용성이 지각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노력한다. 반면에 회피 애착유형의 정서조절전략 특징은 애

착대상의 가용성이 일관적으로 좌절되었으므로, 이들은 이차정서조절전략으로 비활성화전략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차정서조절전략은 타인에 대한 근접성 추구의 일차정서조절전략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접성 추구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근접성의 추구를 활성화시키도록 만드는 위협적인 사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개인의 취약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주의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같은 불안정 애착이라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애착회피 집단과 달리 애착불안 집단은 다른 사람의 존재여부가 개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타인을 고려한 행동이지만 오히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으므로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의 대인관계능력손상을 다룰 때 사회불안 영역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이 매개함을 검증함으로써 고착되어 변화가 어려운 애착문제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위해 상담 장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수집한 자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기보고식 측정은 응답자

의 방어와 응답 스타일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성인 초기의 대인관계라는 영역-특수한 모델을 탐색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한 개인에게서도 부모, 동료, 낭만적 관계에서 작동모형의 일치율이 떨어지므로 각기 다른 관계마다 다른 작동모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Shaver, Belsky, & Brennan, 2000)에 따라 연인관계, 동성친구관계 등 관계-특수한 모델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5).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정신병리와 인지 1: 정서장애를 중심으로. 세미나, 1995, 49-95.
- 권윤정 (2008). 청소년의 애착유형, 자기효능감과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성애 (2008).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유아와 일반유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기 (2000). 대인불안검사와 인성검사. 통계처리상담사례집, 3, 94-105.
- 김영미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이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김수임 (1999).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35(1), 83-95.
- 김혜남 (2006). 어른으로 산다는 것. 갤리온.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4.
- 문혜정 (2004). 성인애착 및 자의식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수준의 차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 (2005). 부와 모에 대한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1992).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2006). 사회공포증 집단의 불안통제감과 사회행동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주 (2003). 낯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신지옥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이화

-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경미 (2008).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불안.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희애 (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자영 (2004).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사회공포증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공적 자의식, 대인불안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정서조절양식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귀선 (2002).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김숙령 (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05).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민현 (2003).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선주 (2008). 불안이 높은 아동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 이현정 (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9.
- 홍계옥, 최경순 (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수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 Phillips, N. (1990).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99-51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78.
- Brisch, K. H. (2003). 애착장애의 치료. 장휘숙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발간일, 1999)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91-1008.
- Fri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83-300.
-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Mikulincer, M., Shaver, T. R., & Perge,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Searle, B., & Meara, M. N.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47-158.
- Shaver, P. R., Belsky, J., & Brennan, K. A. (2000).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romantic attachment; associations across domains and methods. *Personal Relationship*, 7, 25-43.
- Warren, S. L., Huston, L., Egeland, B., & Sroufe, L. A. (1997).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637-644.
- West, M., Sheldon, A. E. R.,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 175, 738-741.

1차 원고접수 : 2011. 6. 27
수정원고접수 : 2011. 8. 12
최종게재결정 : 2011. 9. 02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ies: The Intermediat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nxiety

Kang, Su-Jin

Hwasung-Si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

Choi, Young-H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Studies
The University of Su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ies by analyzing th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nxiety. The subjects were 629 university students. The instruments were the ECR-R(Fraley et al., 2000) adapted by Kim(2004) for adult attachment, the CERQ(Garnefski et al., 2001) adapted by Kim(2004) for emotion regulation style, the SAS-A(LaGreca, 1998) adapted by Moon and Oh(2002) for social anxiety, and the ICQ(Buhrmester et al., 1988) adapted by Kim and Kim(1999) for interpersonal ability.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voidance and anxiety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interpersonal abilities. Attachment avoidance showed a higher degree of predictability of interpersonal abilities than attachment anxiety. Second, interpersonal abilities were influenced by adult attachment through the intermediate effect of the emotion regulation style. Emotional regulation style influenced interpersonal abilities and was partly intermediated by attachment avoidance; whilst it was wholly intermediated by attachment anxiety. Third, interpersonal abilities were influenced by adult attachment through the intermediate operation of the social anxiety. Social anxiety influenced interpersonal abilities and was partly intermediated by attachment avoidance whilst being wholly intermediated by attachment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validity of cognitive intervention upon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furthermore social anxiety may be helpful for those client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derived from attachment problem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ability, emotion regulation style, social anxiety, intermediate effect